

2026년 이란 전쟁에 따른 세계 에너지 위기와 전망

안소연*

투고일자: 2026.07.24. 수정일자: 2026.08.11. 게재확정일자: 2026.08.12.

초록 2026년 이란 전쟁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와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공급 충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26달러를 넘어섰고 주요 해운사들은 기존의 운송 경로를 포기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2026년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에너지 위기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에 미친 다층적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상 비축유 방출과 걸프 산유국들의 수송로 다변화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특정 화석연료와 공급지역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간 양자 공동비축 및 비상시 자원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정학적 위협에 취약한 주요 해상 수송로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송유관 및 대체 운송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특정 국가와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망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2026년 이란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대응하는 기존의 위기관리 방식만으로는 세계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 안보 전략은 비축 확대와 긴급 대응을 넘어 공급원 다변화, 대체 수송망 확보, 국가 간 공동비축 협력, 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랍어과 강사(soyeonahn727@gmail.com)

I. 서론: 2026년 이란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의 서막

중동 지역의 불안은 단순히 지역 내 위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970년대 발발한 1,2차 오일쇼크는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세계 경제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세계 주요 산유국이 중동 지역에 밀집해있는 만큼 중동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은 석유 및 가스 생산 차질과 수송 혼란으로 이어졌다. 즉 중동 지역 정세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26년 3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2026년 이란 전쟁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세계 정치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직후 이란은 보복으로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하였다. 이에 더해 이란은 걸프 국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였다(Al Jaber, 2026). 특히 카타르 라스 라판 가스 단지에 대한 공격으로 카타르는 LNG 장기 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El Dahan et al., 2026). 이란의 공격은 에너지 시설에 그치지 않았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은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선언하고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4월 중순 미국은 이란 항구를 맞봉쇄하는 이중 봉쇄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브렌트유는 4월 30일 배럴당 126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석유시장의 위기를 고조시켰다(CFR, 2026). 본고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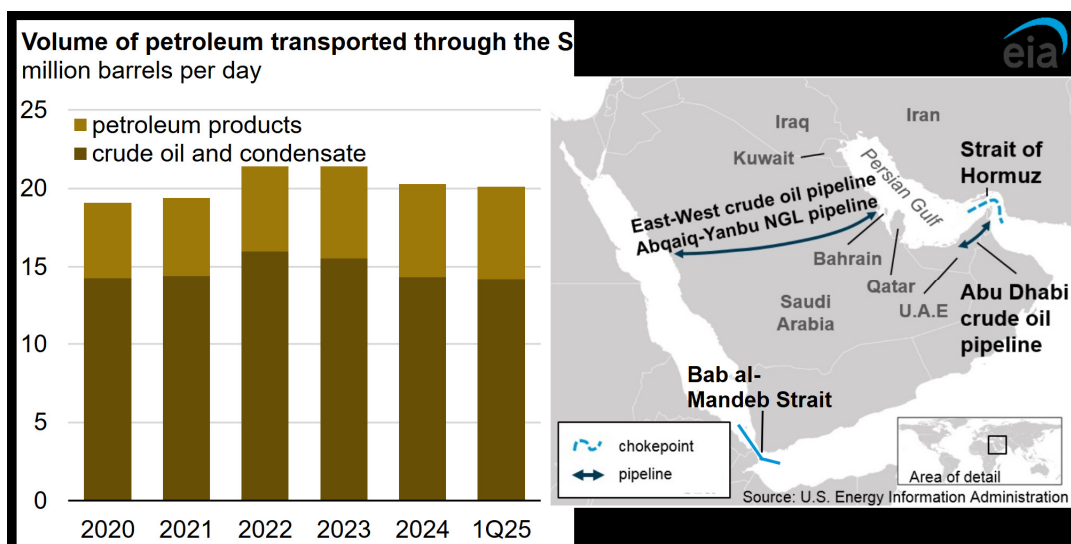
II. 2026년 이란 전쟁이 보여준 에너지 안보 위기

2026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석유 시설 공격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송 차질로 나눌어볼 수 있다. 먼저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들이 군사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기지인 하르그(Kharg) 섬의 하역 시설과 저장 탱크가 공격을 받으면서 이란 원유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Stockwell, 2026). 또한 남부 아바단(Abadan) 정유 공장 등 주요 이란

정제 시설이 파괴되면서 유전들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미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출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급 감소 자체가 세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고조되며 유가 상승 요인에 반영되었다. 오히려 이란이 쿠웨이트 및 사우디 정유 시설, 오만만 인근 석유 인프라 등에 드론 및 미사일 보복 경고를 내보내면서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Itayim, 2026).

하지만 무엇보다 석유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요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이다. 양방향 각 2해리 항로와 2해리 완충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항로는 부재하다(IEA, 2026).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에 배 한 척당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세를 요구했다(Sharma, 2026). 통행세 지불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선박은 IRGC 소속정들이 즉각 다가와 헬기로 특수부대를 투입, 선박을 이란 영해 내 항구로 강제 나포했다. 이란은 드론, 탄도미사일, 소형 공격정을 사용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보복을 가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의 약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EIA, 2025). 하지만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세계 석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밖에 없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으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대부분의 석유를 수출한다. 또한, 카타르와 UAE의 LNG 수출도 고립되기 때문에 세계 LNG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은 전 세계 LNG 수출량의 20%를 차지한다. 더불어 2월 28일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걸프 생산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유조선 수가 줄어들자 원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 조리용 액화석유가스(LPG), 디젤과 제트 연료 같은 중간 증류물 등의 석유 제품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림 1〉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 및 대체 수송로 (출처: EIA)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부분 물동량의 목적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과 LNG의 약 2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수송량에 의존하고 있다. 2026년 이란 전쟁은 원유·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가격 상승과 수입 물량 감소, 공급선 재편을 동반하며 제조업 전반의 조달비용과 운영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70% 가량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5년 82.3%에서 2021년 59.8%로 지난 6년간 약 22.5%p 감소하였으나 2023년 71.9%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 3년간 계속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유광호 외, 2026).

이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오랜 기간 꾀했음에도 지리적 근접성, 국내 정유 설비와 적합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동산 원유의 용이한 접근성 등에 의해 중동 의존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광호 외, 2026). 중동은 다른 지역 대비 배럴당 1.12 달러 정도의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송 기간도 짧다는 이점을 지닌다(유광호 외, 2026). 또한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중질유 및 고황 원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유질의 도입시 정제 과정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여전히 한국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전쟁 이전(2026년 1~2월 평균)과 이후(3~4월 평균)를 비교한 결과 원유(중질유)의 평균 수입 단가는 41.7%, 기타 원유는 39.4% 상승하였으며 부탄, 나프타, 프로판 등 주요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의 수입 단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유광호 외, 2026).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단순한 국제 유가 상승을 넘어 국내 제조업 공급망 전반의 조달 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전이된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원유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용 및 조달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이번 전쟁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III. 2026년 에너지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석유 시장의 불안은 여러차례 겪어온 바 있다. 이미 1차 오일 쇼크를 겪은 이후 석유 공급 불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수립되었다. IEA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은 최소 90일 분량의 석유 비축유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위기 시 비축유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 방출하는 ‘비상 석유 용통 시스템(Emergency Sharing System)’을 구축하였다(IEA 홈페이지). 2026년 이란 전쟁 발발 직후 IEA 회원국들은 분쟁이 시작된지 2주 이내에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긴급 석유 유출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IEA, 2026). IEA 집행 이사의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IEA 집단 재고 방출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재고를 방출했고 이어 다른 지역도 동참하였다. 그 결과 5월에는 공동비축유 일일 250만 배럴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었다. 더불어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 전략석유비축유의 방출이었다. 이는 4개월 간 약 일일 250만 배럴에 해당하는 규모로 원유 공급 부족을 완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부유식 저장이 원유 공급의 부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루코일(Lukoil)과 로스네프트(Rosneft)에 제재를 가한 후, 러시아는 해상에서 대기 중인 유조선에 원유를 비축하기 시작했다(Brooks and Harris, 2026). 전쟁 전 러시아 부유식 원유 재고는 최대 9천만 배럴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이번 전쟁 이후 미국이 임시로 제재를 면제하여 아시아 내 국가들의 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중동 주요 걸프 산유국들도 위기 해소에 동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양부 항구를 통해 수출을 추진하고자 동서 파이프라인 가동을 높임으로써 원유 수송을 신속하게 증대시켰다. 양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은 전쟁 전 일일 200만 배럴에서 6월 초 일일 500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시에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방출량도 증대시켰다. 아랍에미리트도 위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브산(Habshan) 생산 시설에서 시작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오만만 항구 푸자이라 까지 이어지는 380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일

1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 활용하였다(Bosoni et al., 2026). 쿠자이라 인근에 위치한 4,200만 배럴 규모 만두스 지하 저장 단지는 추가 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다. 4월부터 UAE는 오만 해안선을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탐지를 피하고자 유조선의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행하였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의 총 원유 수출량은 6월 초 하루 430만 배럴로 증가하였다. 이는 3월의 190만 배럴에서 증가하여 전쟁 전 수출량의 거의 85%에 달한 규모였다(Bosoni et al., 2026).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걸프 산유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중남미 산유국들도 위기 해결에 적극 동참하였다. 가장 큰 증가는 미국,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가 크게 눈여겨 볼만 하다. 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은 5월에 1,31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Bosoni et al., 2026).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분의 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2025년에 브라질에서 하루 약 120만 배럴(bpd)의 원유를 수입해왔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180만 배럴/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agee, 2026). 브라질의 두 가지 주요 수출 원유 유종인 투피(Tupi)와 부지오스(Buzios)는 ‘중질·저유황(medium-sweet)’ 원유로 분류된다(Magee, 2026). 이는 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디젤(경유) 및 항공유 같은 연료로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 아시아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이다.

IV. 결론: 2026년 이란 전쟁이 남긴 교훈

2026년 이란 전쟁은 에너지 시장의 고질적인 한계와 극복해야 할 과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먼저 이미 세계 에너지 대전환 속 원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재부각시켰다. 이번 전쟁은 각국에 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을 비용 및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화석연료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병목 지점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다. 태양, 풍력, 조력 에너지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원은 국내 자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앞으로 더욱 새로운 안보의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은 에너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에너지 정책과 투자의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저장 기술, 전기화, 전력망 통합, 그리고 공급망 강화까지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동 비축량 재고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과거의 석유 비축이 소비국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들여 쌓아두는 단방향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6년 위기 속 공동 비축은 소비국의 공급 안정성과 산유국의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쌍방향 윈-윈(Win-Win) 전략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2026년 5월 일본이 아랍에미리트에 공동 비축 원유의 신속한 보장 및 비축 확대를 추진한 사례가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소비국과 산유국이 대응하는 협력의 선도적 사례라 할 수 있다(Obayashi, 2026).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2026년 6월을 기점으로 세계 각지 원유 저장 능력 확대를 전면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급망이 붕괴할 경우 소비지 현지 거점이 없는 산유국의 시장 지배력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 중동산 원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미국산 원유 210만 배럴을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또한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공동비축 사업 공식화 및 비상시 우선 구매권 확보에 합의하기도 했다(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 비축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대안 수송로 확보의 중요성이다. 홍해 바브 엘멘데브(Bab el-Mandeb) 해협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이후 희망봉 우회 노선이 다시 부상하였다. 실제로 MSC사, CMA CGM사 등 주요 해외 선박 회사들은 희망봉 노선을 2026년 기본 항로로 공식 편입하였다. 이번 전쟁으로 선사들이 홍해(바브엘만데브)와 호르무즈 두 길목을 동시에 피하게 되면서 우회 노선 구축 노력이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걸프 국가들도 기존 수송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송유관·홍해·오만만 항만·육상 복합 물류 회랑 확충을 추진하며, 이는 중동 유럽-아시아 물류 구조의 다중 경로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대안으로 터키-시리아 ‘사해(Four Seas) 프로젝트’, 터키-카타르 가스관 수송망, 키르쿠크-제이한 송유관, 바스라-아카바 송유관, 이집트 수메드(SUMED) 송유관 등도 언급되고 있지만 비 산유국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영토 통과 국가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Dzulhisham, 2026). 이에 따라 걸프 산유국들은 사우디 내륙과 홍해 항만을 직접 잇는 5개의 신규 화물 물류 회랑, 사우디 담맘(Dammam)의 정유시설에서 육로·해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한 UAE 호르파칸(Khorfakkan) 항구를 연결하는 공동 노선 구축과 같이 산유국 간 협력 방안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Dzulhisham, 2026).

네 번째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SLB(솔럼버거)의 올리비에 르 푸슈(Olivier Le Peuch) CEO는 최근 이번 전쟁이 진정세에 접어들면 많은 국가들이 공급 다각화를 우선시하고 신규 탐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 라틴 아메리카, 심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aker Hughes의 로렌조 세모넬리(Lorenzo Simonelli) CEO 역시 중동 전쟁이 단기적인 공급 차질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전 세계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류 부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 잠재력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과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한 새로운 투자 전략이 구상될 것으로 보인다(Energynow, 2026).

새로 주목받는 신규 공급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호주 등이 있다. 아프리카는 미개발된 석유 및 가스 자원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 매력적인 신규 투자 지역으로 평가된다(한국석유공사, 2026). 또한 아르헨티나의 Vaca Muerta(바카 무에르타) 셰일 분지를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비전통 자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한국석유공사, 2026). 호주의 경우 아시아 LNG 공급망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중동 공급 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규 지역으로 상류 부문 개발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석유공사, 2026).

2026년 이란 전쟁은 지역 분쟁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제조업 기반을 얼마나 흔들리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에너지 안보 위기의 새로운 경고장이었다. 이제 각국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자각하였다. 더불어 다각적인 수송로 확보와 산유국과 소비국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유광호, 이다운, 백하은 (2026. 4. 1).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 (세계경제 포커스 Vol. 9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석유공사 경영전략처 (2026. 5. 14).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 미국산 원유 210만 배럴 입고 현장 점검 (보도자료). https://www.knoc.co.kr/sub11/sub11_1.jsp?num=981&mode=view&bid=NEWS&field=&text=&page=1
-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정보분석팀 (2026. 6. 30).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란발 석유 리스크 고착화? (오늘의 이슈).
- Al-Jaber, K. (2026). The limits of neutrality for Gulf states in the U.S.-Israel-Iran war (Policy Note). Qatar: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 Bosoni, T., Martin, D., & Schulz, R. (2026, June 22). How global oil supplies have readjusted to help fill the huge gap left by the Strait of Hormuz shock.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ttps://www.iea.org/commentaries/how-global-oil-supplies-have-readjusted-to-help-fill-the-huge-gap-left-by-the-strait-of-hormuz-shock>
- Brooks, R., & Harris, B. (2026, May 22). The timing of the impending crude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timing-of-the-impending-crude-crisis/>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 April 30). Trump vows to continue blockade against Iran. <https://www.cfr.org/articles/trump-vows-to-continue-blockade-against-iran>
- Dzulhisham, H. E. (2026, April 29). Alternatives to Hormuz: How to export oil and gas from the Persian Gulf (RSIS Commentary No. CO26093).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El Dahan, M., Mills, A., & Saba, Y. (2026, March 19). Iran attacks wipe out 17% of Qatar's LNG capacity for up to five years, QatarEnergy CEO says.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ran-attack-damage-wipes-out-17-qatars-lng-capacity-three-five-years-qatarenergy-2026-03-19/>
- EnergyNow Media (2026, April 25). SLB, Baker Hughes see oil exploration spending rising as Iran war disrupts supply. EnergyNow.com.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6, February). Strait of Hormuz factsheet.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strait-of-hormuz>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6, March 19). IEA confirms Member country contributions to collective action to release oil stocks in response to Middle East disruptions.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n.d.). Oil security and emergency response: Ensuring quick and effective response to major supply disruptions.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
- Itayim, N. (2026, March 19). Refineries in Kuwait, Saudi Arabia hit by drones. Argus Media.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803125-refineries-in-kuwait-saudi-arabia-hit-by-drones>
- Magee, C. (2026, May 25). Could Brazilian oil emerge as one of the big winners of the Iran war?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6/5/25/could-brazilian-oil-emerge-as-one-of-the-big-winners-of-the-iran-war>
- Obayashi, Y. (2026, May 7). Japan, UAE agree to hold talks on expanded oil supply and joint stockpiles.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japan-uae-agree-hold-talks-expanded-oil-supply-joint-stockpiles-2026-05-07/>

Sharma, Y. (2026, May 21). Maths behind Hormuz toll: Is paying Iran for transit cheaper than blockade?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6/5/21/maths-behind-hormuz-toll-is-paying-iran-for-transit-cheaper-than-blockade>

Stockwell, B. (2026, April 8). US has struck Iranian military targets on Kharg Island. Here's what we know about it. CNN. <https://edition.cnn.com/2026/04/07/middleeast/kharg-island-us-assault-risk-trump-intl>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5, June 16). Amid regional conflict, the Strait of Hormuz remains critical oil chokepoint.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5504>

The Global Energy Crisis and Outlook Following the 2026 Iran War

Ahn, So Yeon*

Abstract The 2026 Iran War served as a critical reminder of how Middle Eastern geopolitical instability threatens global energy security. The total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and attacks on key energy facilities triggered severe supply shocks, driving Brent crude prices past \$126 per barrel and forcing major carriers to abandon traditional shipping routes.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faceted impacts of the crisis and analyzes international responses, including IEA emergency reserve releases and pipeline diversifications by Gulf producers. Finally, the study outlines four strategic lessons: accelerating the energy transition, expanding bilateral stock-sharing frameworks, securing alternative transport corridors, and diversifying supply chains toward stable regions. Ultimately, the crisi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to transition from short-term crisis management to a comprehensive, multi-layered energy security architecture.

*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